

대퇴골과의 박리성 골연골염의 치료

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이동철 · 손욱진 · 권 순

목 적

최근 슬관절 박리성 연골염의 진단 및 치료방법에 많은 변화가 보고 되었다. 이에 저자들은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치료받은 17명 20례에 대해 임상적 분석을 하여 연구결과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

1991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에서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치료받은 환자중 6개월이상 추시 관찰 가능한 17명 20례를 대상으로 하였다.

결 과

- 1) 대상분석 남자는 12명 여자 5명으로 나타났고, 평균연령은 19세(11세~50세)였다. 과거력상 스포츠손상이 8례, 외상병력이 3례로 나타났다.
- 2) 증상 및 동반질환: 동통, giving way locking 증창 clicking등이 있었고 동통이 20례 전례에서 있었으며 동반질환은 활액막염, 추벽증후군, 연골판 손상, discoid meniscus 연골연화증 ACL 손상등이 있었고, 이중 활액막염이 7례로 가장 많았다.
- 3) 병변분석: 병변위치는 내과 관절면이 14례 외상 관절면이 6례였다.
- 4) 치료: 수술적 치료시행한 16례에서 관절경 소견상 골연골편의 완전분리가 4례 부분분리가 12례였고 이들중 8례에서 Herbert screw로 고정하였고 4례에서 drilling을 시행하였다.
- 5) 임상결과. IKDC와 Hughston 평가법을 이용하였으며 IKDC에서 nearly normal 이상이 8례 Abnormal이 9례였고, severe abnormal이 3례였으며 Hughston 평가법에서 good 이상이 15례로 나타났다.

결 론

- 1)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의 원인중 외상이 중요한 요소라 사료된다.
- 2) 수술과 보존적 치료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로 얻을 수 있었다.
- 3) 주관적인 기준이 되는 IKDC의 성적이 Hughston평가보다 나쁜 것은 개개인의 요구도와 활동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.